

2016년 기획연구 보고서

Part3

신문자료에 나타난 기부 관련 특성의 변화 양상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민영



I. 연구의 배경

국가에서 소외계층을 위하여 지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 바, 예산을 통하여 약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과 비영리단체 등을 통하여 국가를 대신하여 소외된 약자들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민간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방법은 정부의 복지 책임에 대한 보충적 역할을 하고, 시범적이며 융통성 있고 전문적이며 봉사적인 특성을 갖는다. 또한 정부의 복지서비스 보다 수혜대상자의 자존심을 유지시키는데 유리하고 기부와 봉사 등 많은 시민의 참여를 촉구하게 때문에 복지의식과 사회적 연대의식을 높여 사회통합에도 기여한다(김수성·문성훈, 2015).

그러나 한국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민간의 지원은 한국전쟁이후 외국원조에 크게 의존하였고 그 이후에는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 재정적인 자립기반이 취약한 특성을 지닌다(류기형, 1991). 이에 민간 기관들은 정부나 재정지원자들의 지원을 용이하게 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스스로의 특성인 자율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반면에 국가의 책임은 정부의 국방과 개발 등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출 부담으로 인해 충분히 재정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며, 현대 국가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경향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민간의 상보적인 관계는 다양한 기부금품 모집, 즉 모금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한 다양한 모금 캠페인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방위성금, 재해의연금모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사회복지사업기금모금, 대한결핵협회 모금, 구세군의 자선냄비모금, 백만인 걷기운동모금, 결연후원사업, 사랑의 열매 캠페인 등의 모금이 지난 수십 년간 상시적으로 계절적으로 실시되어왔다. 이러한 국가적 조직적 모금활동은 몇 가지 비판을 받아왔는데, 첫째, 수혜대상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자선적, 구호적, 일시적이어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시민참여가 어려웠다는 점, 둘째, 기부자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준조세적인 성격의 ‘국민성금 - 방위성금, 평화의 댐성금 등 -’의 경우가 적지 않아 정경유착이나 강제성이 있어 자발적인 참여를 저해하는 부작용도 있다는 것이었다(류기형, 1991). 전자의 문제는 최근 20년간 국가의 법제도 개선과 세제혜택 등의 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모금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모금과 배분 활동-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 발전을 이뤄왔다. 그러나 후자의 문제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듯하다. 2011년 국군장병 격려성금이 국가(정부)의 의무와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으로 비판받았고(변홍철, 2011.1.23. 평화뉴스; 정원식, 2011.2.15. 주간경향), 적십자회비의 준조세적 성격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hedgehog, 2016.4.12. 연합뉴스), 2016년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후원과 관련된 사건 또한 정경유착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대권, 2016.4.22. srwire.co.kr).

이와 연결되어 최근 10년간 모금활동에 대한 국가의 관여 중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이 상보적 위치에서 경쟁적인 위치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외계층 지원과 복지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은 여전히 상호의존적이지만,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접근에서는 경쟁적으로 모금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정부의 예산부족분을 민간 기부금으로 전용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모아진 기부금을 정부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기부금 모집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편하고(최근 개정하려는 기부금품모집법 상에도 공공기관의 모금 활동 장려) 실제 공공기관을 재단으로 전환하면서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높다. 물론 이는 국가 개입확대와 증세에 대한 강한 반대의 맥락 속에서 위치하는 교육지책일지라도 세금으로 할 일을 민간의 기부금으로 하는 것은 국가와 민간의 책임과 의무의 범위와 모호해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이처럼 복지 및 소외계층지원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대응은 상보적이면서도 대립적이다. 역할에 있어서는 상호의존적인 위치에 있으나, 재정적인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는 경쟁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부와 자선의 역할은 무엇인가. 세금과 국가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인가. 장흥배(2014)는 ‘아이스버킷 챌린지’(2014년)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유래없이 정치인, 연예인, 기업인,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성공을 거둔 모금활동이었다. 이를 통해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으나 관련 민간 조직에 기부하는 형태로 기부금 활용방법이 정리되면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결국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문제 해결의 책임은 국가에게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금캠페인을 통한 국가의 책임과 약속의 실행은 사회적으로 재환기되지 않았다(장흥배, 2014.8.27. 시민정치시평).

그동안 수많은 언론매체들을 통해 기부와 자선은 인간의 선한 의지를 확인하고 공동체의 연대감을 북돋우는 일로 격려되고 동기 부여되어 왔다. 성공한 기업가들(빌게이츠, 워런 버핏 등)의 인격적 훌륭함을 강조하는 것(김동호, 2015.10.15. 중앙일보) 이외에 한국사회의 ‘기부’가 어떤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해 왔는지,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맥락과 함께 놓여있는지 등에 대한 기부가 가진 특성과 변화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하였다. 그 논의의 시작점으로써 기부문화가 급속도로 확대되어 온 최근 20년간 한국 사회에서 ‘기부’가 역사적-정치적-사회적인 맥락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놓여왔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언어적 관점에서 최근 20년간 신문자료에서 기부 및 관련어가 어떻게 등장하고 변화해왔는지 탐색적 연구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II. 연구의 목적과 내용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신문자료에 나타난 기부와 관련한 연관 검색어(관련어: related keyword, 혹은 공기어)의 변화 추이를 통해서 한국사회의 기부 특성과 의미의 변화 흐름을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기부' 키워드(주제어)의 추이뿐만 아니라 문단 내에서 그와 연관 관계를 이루는 관련어들의 추이를 함께 분석하였다. 단순히 키워드(주제어) 변화만을 보는 것보다 '연관 검색어'를 이용한 분석 방법은 변화 추이(트렌드)를 보는 데 우연성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보기 때문이다(LG경제연구원, 미디어다음, 2010). 이에 '기부'라는 특정 키워드의 연관 검색어(관련어)의 빈도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기부에 대한 관심사의 변화 양상과 트렌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동안 한국인의 관심이 높은 키워드를 선정하여 트렌드를 분석한 연구들은 언어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아파트 상표의 언어를 분석하여 그에 반영된 사회상과 트렌드를 분석(채완, 2007)하거나 한국사회의 소비와 관련한 언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문화소비현상의 트렌드를 연구(김혜영·김홍규·강범모, 2012)하거나 신문자료의 정치 분야에서 활용되는 언어의 증감 추세를 분석한 연구(이영제·강범모, 2012) 등이 있었다. 기부영역에서 트렌드 분석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15)에서 기부 및 사회이슈 트렌드 분석(노혜진 외, 2015)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기존 기부관련 조사자료(예, 기빙코리아)를 토대로 기부참여율 감소와 평균기부금액의 증가 현상 등에 대해 추이를 제시하고, 그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지표의 변화와 별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는 기부의 특성변화를 기존 통계자료의 결과를 재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사회문제의 트렌드를 별도로 분석한 것이어서, 공통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기부현상의 사회 문화적 해석까지 복합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공통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통해 '기부'에 관한 좀 더 다양하고 객관적인 트렌드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기부 관련 언어를 통해 한국사회의 기부 특성 변화를 탐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온라인상의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연구하는 방법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특정 사회현상에 대한 장기간의 변화를 밀도 있게 살펴보는 목적을 가진 연구에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SNS나 블로그 등 인터넷 웹상에서의 언어들이 방대하여 그 데이터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여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영제와 강범모(2012: 204)는 인터넷상의 웹문서나 블로그가 가진 정치적 편향성과 익명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온라인 상 제공되는 빅데이터와 달리 상대적으로 신문 기사 자료는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내용별로 면종을 구분하고 있어 각 분야별 특징적 키워드를 추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통의 데이터베이스를 대용량 신문자료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신문을 비롯한 매스미디어는 현실의 사회적 구성자(social constructor of reality)로서 사회문제를

조명하고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신문 보도에 의해 창출되는 의식은 '어떤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사회 정보와 사상의 전달매체인 신문을 통해 전달되는 기부 관련 보도의 내용 및 방식, 언론의 접촉빈도는 일반인의 기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적 질서 재구성의 중요자원으로 신문이 활용될 수 있기에 여기서 기부의 이슈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김미혜 외, 2004: 44-5). 즉,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대용량의 신문 매체를 기반으로 연구하는 방법은 좀 더 시사적이고 다양하며 객관적인 트렌드 분석이 가능하도록 도울 것이다(이영제·강범모, 2012). 요컨대 본 연구는 신문자료(코퍼스: corpus¹⁾)에 나타난 기부 관련 주제어(키워드: keyword)를 대상으로 해당 주제어 및 그와 관련된 표현(관련어: related word)의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하여 한국사회의 기부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해석을 시도한 연구라 하겠다.

1) 코퍼스(corpus) : 말뭉치, 말모듬 이라는 뜻으로 언어 데이터를 한데 모아둔 것을 의미한다. (참고: <http://corpora.tistory.com/>)

Ⅲ. 연구 대상과 분석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구축한 주요 일간지의 신문 기사를 데이터베이스인 'BIG KINDS-pro(빅카인즈프로)'의 코퍼스를 연구 자료로 삼았다. 빅카인즈(BIGKINDS)는 종합일간지, 경제일간신문, TV방송뉴스, 인터넷신문, 영자일간지, 지역주간신문과 고신문 및 90년대 이전신문 등을 포함한 최대 규모의 기사DB를 바탕으로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빅카인즈프로(BIG KINDS-pro)는 특정 뉴스에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개인화 된 텍사노미 관리, 질의어 관리, 정보 추출 패턴 규칙 적용 기능을 제공하고 트렌드, 네트워크 분석 등의 다양한 분석도구를 제공하며, 분석 결과는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 해당 사이트는 www.bigkinds.or.kr 이다.

본 연구에서는 빅카인즈프로 데이터베이스에서 1998년부터 2015년까지 18년 동안 전국단위 주요 일간지(중앙지) 중 한겨레, 경향, 한국, 국민, 문화일보의 신문자료 600만개 이상의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²⁾. 현재 빅카인즈에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였다.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기부'에 관한 사회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치, 사회, 문화, 국제 등의 면종별 분류에서 '사회면'³⁾에 나타난 '기부' 관련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언론재단에 별도 요청하여 받은 각 매체별 수록 기사 수는 2016년 11월 22일 기준으로 한겨레 1,255,159건, 경향 1,608,725건, 국민 1,103,225건, 한국 1,151,953건, 문화 790,235건 이었다. 조선일보의 경우(<http://srchdb1.chosun.com>)에서 1920년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290만여 건의 기사가 검색가능하며, 중앙일보의 경우(<http://search.joins.com>)에서 220만여 건의 기사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다.

실제 언어 현상을 보면 빈도가 높은 것이 언어학적으로 더 의미 있는 경우 많다(이영제·강범모, 2012: 210). 이에 본 연구에서 빈도가 높은 관련어의 추출을 위해 빅카인즈프로에서 제시하는 가중치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가중치 산출방법은 특정 키워드(기부)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찾기 위한 TopicRank(토픽랭크) 공식을 활용하였다. TopicRank 알고리즘에 의해 산출된 값, 즉 가중치는 키워드(검색어)와 가까우면서 위치하면서 반복되는 단어일수록 높은 값을 갖게 된다.

TopicRank는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에 기반하여 검색한 결과에 대해 공식적 분석과 워드 클러스터링을 하여 동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의미의 네트워크(Semantic Network)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이

2) 빅카인즈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상 검색된 기사에 기사 중복이 있을 수 있다. 종이로 만든 신문과 온라인 신문기사가 내용이 같지만 뉴스ID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기사로 처리되어 2건으로 검색될 수 있는 제한점이 발견되었다(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팀, 2016.11.15.).

3) 단, 조선일보 데이터베이스는 면종별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종합면(전체기사)으로 분류되어 있어 분석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다. 토픽랭크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산출된다.

- Step 1 : 주어진 용어와 관련있는 N개의 문서를 가져온다.
N개의 Top 문서를 가져오기 위해 쿼리를 검색엔진에 전송한다.
- Step 2 : 관련 용어를 수집한다.
쿼리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변의 용어들을 포함하는 snippet들을 구한다⁴⁾.
snippet의 용어들을 모두 추출하고, tf, df를 구한다.
공기(co-occurrence)어 매트릭스를 생성한다.
- Step 3 : M개의 Top 용어를 선택하기 위해 다음의 가중치(weight)를 사용한다.
$$\text{가중치}(\text{weight}) = \text{sumDFSimple} * \text{tf}(w) * \text{idf}(w)^2$$

sumDFSimple: 복합 명사에 가중치를 주는 weight 함수
tf: 쿼리 키워드를 중심으로 거리를 계산한 weighted term frequency
df: document frequency
- Step 4 : 용어를 벡터로 표현
M개의 Top 용어를 이용하여, 용어 벡터를 구성한다.
- Step 5 : M개의 Top 용어 클러스터링
M개의 Top 용어 벡터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수행한다.

즉, 키워드 주변의 단어를 모두 뽑고 몇 번 반복되는지 매트릭스를 만들어 높은 빈도의 용어를 선택한다. 높은 것 중에서도 키워드와 복합명사로 쓰이는 (예, 트럼프 당선인, 최순실 국정농단) 것에 대한 복합명사 가중치를 준다. tf는 키워드 주변 반복되지만 다른 문서에는 많이 노출되지 않는 단어의 빈도수, df는 문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의 빈도 수(예, ~하는 것 등의 조사 등)를 의미한다. tf값은 높은 가중치를 주고, df값은 낮은 가중치를 준다. 이 토픽랭크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Step 2의 snippet 사이즈, Step 3의 weighting 함수, 그리고 Step 3에 Name Phrase나 Named Entity의 적용 여부 등 변경 요소가 될 수 있다. 요컨대 가중치가 높다면, 상대적으로 잦은 빈도이며, 키워드에 가까이 위치하고, 다른 기사에서 보다 노출이 높은 관련어를 의미한다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별도 요청자료 2016.11.22.).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방법은 강범모·김흥규 (2011: 33)가 번역한 문화체학 혹은 컬처로믹스(culturomics) (에레즈 에이든, 장바티스트 미셸, 2015) 라고 할 수 있다. 문화체학은 책 등의 출판물을 대용량의 코퍼스로 구축하고 이를 계량적 분석 방법을 통하여 인간의 언어와 문화, 삶의 방식 등이

4) snippet은 쿼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 단어들의 셋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09년 아름다운재단 기부금 모금 실적 보고서"란 문장에서 "기부금"이 쿼리 키워드라고 하고, 앞뒤 1개의 단어를 snippet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아름다운재단 기부금 모금"이 snippet이 된다. snippet 사이즈란 쿼리 키워드를 중심으로 앞뒤로 몇 개의 단어를 하나의 셋으로 만드느냐를 말한다(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별도 요청자료(2016.11.22.) 중 TopicRank(토픽랭크) 소개자료(2015.08.06.))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밝히는 분야이다.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인 구글(google)에서 구축한 약 500만원에서 5천억 단어의 분량의 코퍼스를 대상으로 시도한 연구방법이 있다(이영제·장범모, 2012: 204). 예를 들어 Google Books Ngram Viewer(구글엔그램뷰어)를 통해 검색한 결과를 살펴 보자(에레즈 에이든과 장바티스트 미셸 저, 김재중 역, 2015 참고). 아래 [그림 1]은 1800년부터 2000년 사이의 영어 코퍼스에 “fundraising(모금) 과 volunteering(봉사)” 라는 언어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10억 단어 당 빈도를 살펴보았을 때 역사적으로 ‘봉사’가 ‘모금’ 보다 월등히 자주 언급되었다. 1940년대가 지나서야 ‘모금’의 언급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85년을 기점으로 ‘모금’의 언급이 ‘봉사’를 앞지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985년에 ‘모금’과 ‘봉사’의 언급이 역전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 탐색하고 어떠한 사회문화적 상황이 그러한 변화를 이끌게 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해보는 연구방법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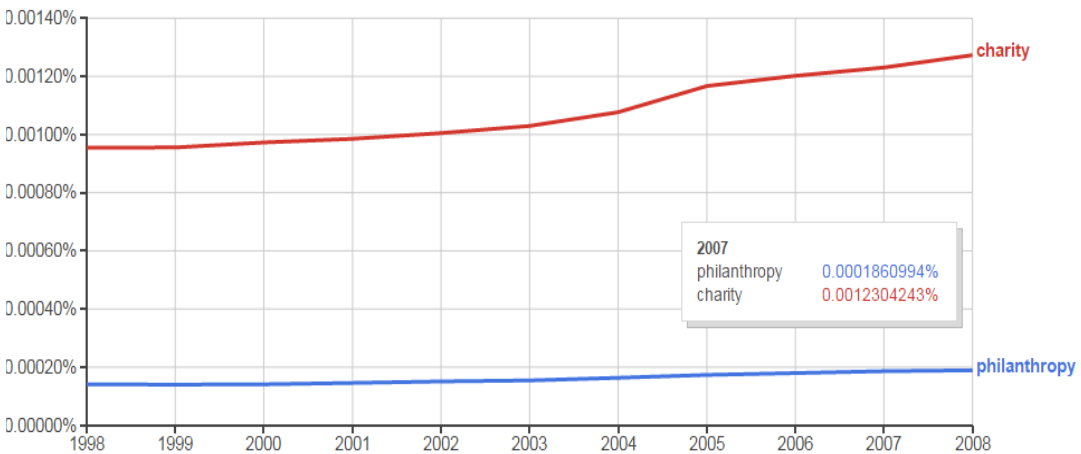
[그림 1] Google ngram viewer를 통해 분석한 1800년부터 2000년까지 “fundraising(모금)과 volunteering(봉사)” 변화 (English only)

구글 엔그램 뷰어(Google ngram viewer)는 문화체학 분석방법을 시각적인 도구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사용자가 몇 개의 키워드가 변화하는 추이를 보고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큰 방법론이다. 앞서 연구의 배경에서 궁금해 했던 키워드 “philanthropy(기부)”와 “charity(자선)”의 추이를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수세기동안 자선은 기부보다 방대한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기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100년 동안 기부와 자선 모두에서 단어의 상대빈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Google Ngram viewer를 통해 분석한 1800년부터 2000년까지 “charity(자선)와 philanthropy(기부)” 변화 (English only)

그런데, 최근 10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점증적으로 기부와 자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도 파악할 수 있다(아래 [그림 3] 참조).



[그림 3] Google Ngram viewer를 통해 분석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charity(자선)와 philanthropy(기부)” 변화 (English only)

그러나 이와 같은 구글엔그램과 같은 문화체학 방식처럼 단지 키워드의 변화만을 볼 경우에는 실제 그 변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엔그램의 데이터가 구글 책들(google books)라는 제한된 자료 범위 때문에 왜곡될 여지도 있다. 대상자료가 특정 영역(구글이 구축한 도서 데이터베이스)이어서 사회문화적 현상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장르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와 연관되어 나타는 관련어들의 추이를 함께 분석하면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키워드와 관련어는 의미의 네트워크(Semantic Network)를 이루고 있어서 어떤 현상에 대한 관심의 변화가 키워드에 반영될 경우 함께 변화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이영제·강범모, 2012: 209). 의미 연결망을 통해 어떤 현상을 언어, 사회, 문화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위의 구글엔그램뷰어처럼 키워드만이 아닌, 주제어(중심어)인 키워드와 관련어의 추이를 모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영제·강범모,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와 함께 관련어까지 비교해서 그 변화 추이를 보여줌으로써 해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특정 키워드와 한 문단 내에서 공기하는 모든 단어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더 넓은 범위에서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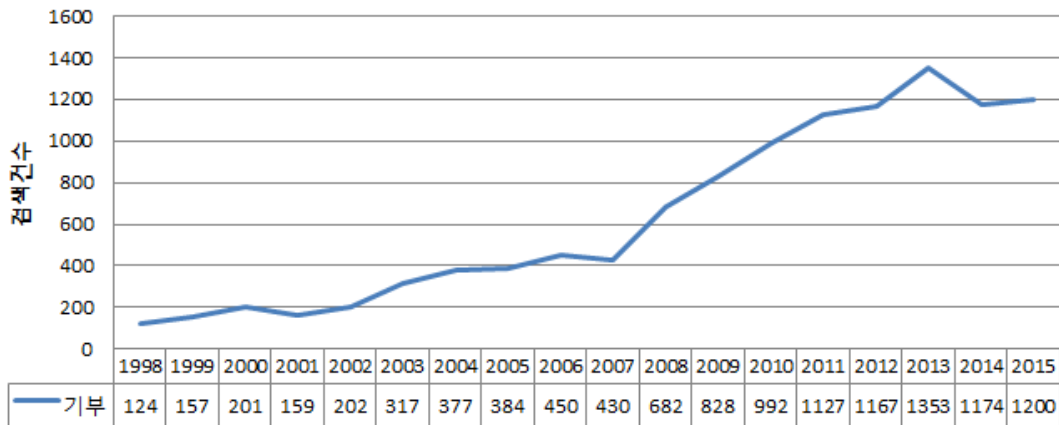
공인된 지면 신문 기사를 통한 변화 추이 분석은 실제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측면이 있고 면종별 분류도 가능해서 사회문화적 현상을 분석하는데 유리하다. 빅데이터 분석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문화체학(컬처로믹스) 방식에 비해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이영제·강범모, 2012: 210).

IV. 연구결과

1. ‘기부’ 키워드(주제어) 분석

1) ‘기부’ 키워드 추이

우선, 조선일보에서는 기부 키워드 검색건수는 4,953건⁵⁾이며, 중앙일보는 4,073건이었다. 한겨레 신문은 2,920건, 경향신문 2,580건, 한국일보 1,755건, 국민일보 2,483건, 문화일보 1,586건으로 나타났다⁶⁾. 아래 그림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제외한, 주요 5개 일간지⁷⁾에서 검색된 ‘기부’관련 기사의 빈도였다.



[그림 4] 주요 5개 일간지에 나타난 ‘기부’ 키워드 검색건수(년간) (1998년~2015년)⁸⁾

‘기부’에 관한 검색건수(언론의 보도 노출 빈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부에 관한 기사들은 1998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7년부터 급증하였다. 2013년에는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부’ 키워드 검색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매해 12월에 급증한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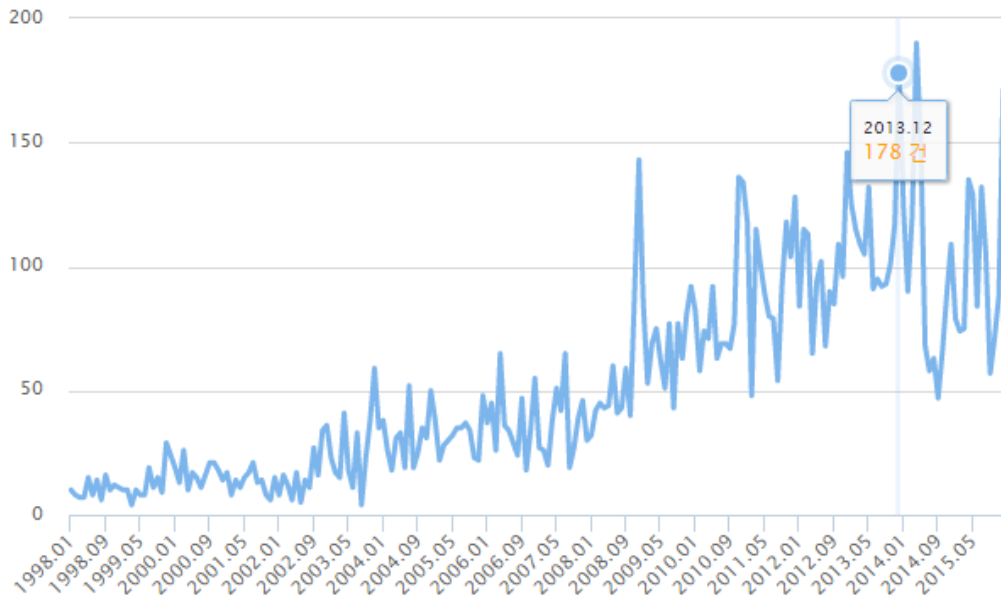
5) 조선일보는 데이터베이스 특성상 지면별 검색이 불가능하였다. 본 건수는 전체지면에서 검색된 ‘기부’ 키워드 빈도로써 타 언론사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6) <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Chart.do> 에서 2016.11.23. 재추출하였다.

7) 본 연구에서 주요 5개 일간지는 빅인즈에서 제공하는 중앙지 중 발행부수가 많은 한겨레, 경향, 한국, 국민, 문화일보를 칭한다.

8) <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Chart.do> 에서 2016.11.24. 재추출하였다.

‘기부’ 관련 신문자료의 보도는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아래 그림과 같이 월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매해 12월에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주요 5개 일간지에 나타난 ‘기부’ 키워드 검색건수(월별) (1998년~2015년)

또한 월별 ‘기부’ 키워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은 특징적인 사건이 기부 관련 기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그림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지점은 한 달에 190건이 보도되었던 2014년 4월 이다. 이 시기에는 세월호 참사 사건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기사에 ‘기부’ 키워드가 급증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2) ‘기부’ 관련어 추이

각 주요 일간지별로 나타나는 ‘기부’와 높은 빈도로 공기하는 단어는 다음과 같았다. 중앙일보의 경우, ‘기부’와 관련어로 나온 것을 보면 피해이웃, 기부금, 나눔, 어린이, 수익금, 재산, 캠페인, 아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미국 등으로 나타났다⁹⁾. 한겨레신문의 경우, 자원봉사, 푸르메재단, 강원원주기독병원, 국제구호단체, 게임회사 등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의 경우, 장학금, 모금기관, 부동산, 기업체, 대한상공회의소,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의 경우, 세월호 참사, 추성훈,

9) 조선일보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부’ 의 연관 검색어(관련어)를 추출할 수 없었다(조선일보 데이터 관리자 직접 확인 2016.11.23.).

5,000만, 양현석, 아이들, 희생자들, 송승헌 등으로 나타났고, 국민일보의 경우, 공공기관, 보험금, 봉사활동, 시민운동단체, 위례시민연대, 기독교인 아이들 등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의 경우, 장애인, ARS, 다양화, 불우이웃, 이타적 활동, 적극적, 푸르메재단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부’ 관련어들의 특징은 최근의 상황들을 반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기부’에 관한 기사는 2007년이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와 공기하는 관련어는 최근 10년의 기사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해마다 기부 관련어들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빅카인즈프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회면에서 기부라는 키워드로 나타나는 관련어를 상위 20개씩 추출하였고, 그 중에서 편중되지 않고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 키워드를 선별하였다. 아래 표의 관련어는 ‘기부’와 자주 등장하는 높은 관련성을 보여주는 단어들을 순서대로 제시한 것이다.

〈표 1〉 주요 5개 일간지 사회면에 나타난 기부와 연관된 검색어의 각 연도별 순위 (가중치점수에 따른 순위)

순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학부모회	장차금	소득증제	이사장	사람들	행사 피고인들	사람들	고려대 의과원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2	교육부	노동단체	불우이웃	상근단체	신개념	구속기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연계	연계	연계	연계	연계	연계	연계	연계	연계	연계	연계	연계
3	학교발전 기금	현명재단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
4	장차금	노동조합	재정경제부	벤처기업	장차금	벤처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5	한국여성 위원회	사건선거운동	공익법인	공익법인	공익법인	공익법인	공익법인	공익법인	공익법인	공익법인	공익법인	공익법인	공익법인	공익법인	공익법인	공익법인	공익법인	공익법인	공익법인
6	포경행위	부정관사	장애인	불우이웃	불우이웃	불우이웃	불우이웃	불우이웃	불우이웃	불우이웃	불우이웃	불우이웃	불우이웃	불우이웃	불우이웃	불우이웃	불우이웃	불우이웃	불우이웃
7	재단부	이아름재단본부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8	한미재단소	민중노동당	김정애	교육비	교육비	교육비	교육비	교육비	교육비	교육비	교육비	교육비	교육비	교육비	교육비	교육비	교육비	교육비	교육비
9	합계	행정자치부	양문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10	이바사회	시민단체들	교인	사회봉사활동	인양	인양	인양	인양	인양	인양	인양	인양	인양	인양	인양	인양	인양	인양	인양
11	투명성	장차금법 조항	투명근로 1억	공익회계사	원칙	원칙	원칙	원칙	원칙	원칙	원칙	원칙	원칙	원칙	원칙	원칙	원칙	원칙	원칙
12	진실조사	불하차분	조세	권고수	CEO	SK텔레콤	SK텔레콤	SK텔레콤	SK텔레콤	SK텔레콤	SK텔레콤	SK텔레콤	SK텔레콤	SK텔레콤	SK텔레콤	SK텔레콤	SK텔레콤	SK텔레콤	SK텔레콤
13	장차금	국민회의	전액 공제	장기공제부	대기업	KLS	KLS	KLS	KLS	KLS	KLS	KLS	KLS	KLS	KLS	KLS	KLS	KLS	KLS
14	의원직	현행 장차금법	공익단체	사전신고제	교묘해 추기증	후원자	후원자	후원자	후원자	후원자	후원자	후원자	후원자	후원자	후원자	후원자	후원자	후원자	후원자
15	재단장	북한 어린이	사범학교	행정자치부	동국대	동국대	동국대	동국대	동국대	동국대	동국대	동국대	동국대	동국대	동국대	동국대	동국대	동국대	동국대
16	먼저 후원회장	재단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17	개인재산	사회복지단체	고이원	재단실습생	신아원	신아원	신아원	신아원	신아원	신아원	신아원	신아원	신아원	신아원	신아원	신아원	신아원	신아원	신아원
18	차익사각	장차금법	재활원	지역 지원법	재활원	재활원	재활원	재활원	재활원	재활원	재활원	재활원	재활원	재활원	재활원	재활원	재활원	재활원	재활원
19	행복추진	박씨	가톨릭대 사회복지학	일명근역	일명근역	일명근역	일명근역	일명근역	일명근역	일명근역	일명근역	일명근역	일명근역	일명근역	일명근역	일명근역	일명근역	일명근역	일명근역
20	진적	서씨	공적기관	결판기관	우리 사회	우리 사회	우리 사회	우리 사회	우리 사회	우리 사회	우리 사회	우리 사회	우리 사회	우리 사회	우리 사회	우리 사회	우리 사회	우리 사회	우리 사회

신문자료에 나타난 ‘기부’ 관련어를 분석해 본 결과, 기부와 관련된 언어의 변화가 드러났다. 첫째, 기부 영역이 1998~1999년 정치활동과 관련이 되어 신문자료에 언급된 빈도가 높았다. 2000년에 들어오면서 불우이웃과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접근이 시작되었다. 2002년 대기업 CEO의 참여, 2004년에 임직원의 참여, 보험금 관련 언급이 많아졌다. 2005년부터 자원봉사활동과 연계, 보험금의 기부 연관이 높았다. 2006년부터는 의료에 대한 관심, 이미 기부한 금액에 대한 관리, 2010년에는 연예인에 대한 기부의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2011년부터 국제구호단체로 관심, 2012년에는 고액기부자 클럽인 honor society가 주요 관련어로 등장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2014년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자들을 위한 기부 언급이 높았고, 연예인들 개별적 언급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2015년에는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보였다. 둘째, 기부를 통해 지원하였던 분야를 살펴보니, 정치 분야의 경우, 2000년 이전에 정치자금, 선거운동 등의 문제가 중점되다가 2002~2003년 선거법 위반, 형사사건으로 2005~2006년 선관위, 정치자금이 다시 등장하였다. 교육 분야의 경우, 학교발전기금, 대학의 기부금/기금조성 관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다가 2010년에 들어서는 교육과학 창의인재 장학금으로 변화가 보였다. 의료분야의 경우, 2006년부터 난치병, 장애인, 재활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복지 분야의 경우, 불우이웃에 대한 기부, 세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 아동, 여성, 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농어촌과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재해에 대한 기부도 있었으며, 2011년 이후에 국제구호 등에 관한 관련어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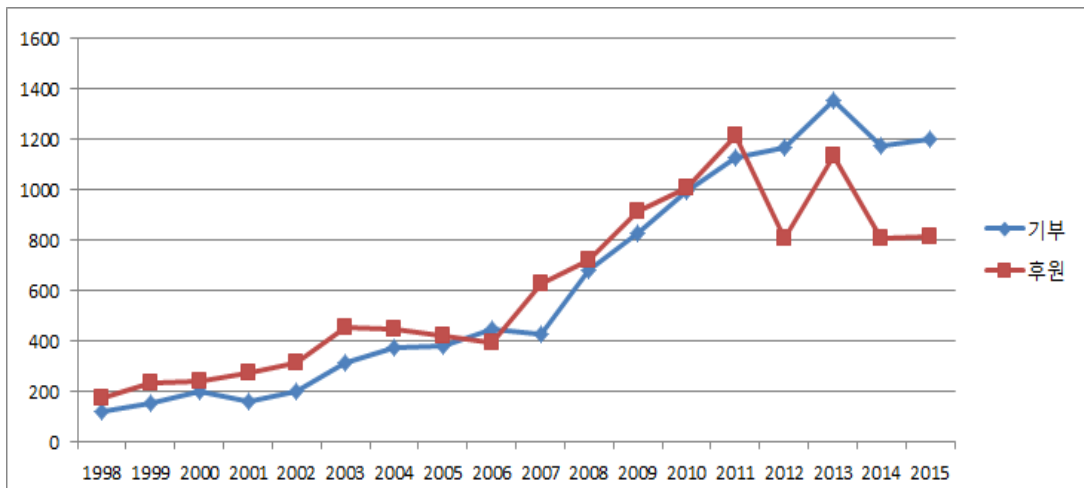
위의 주요 5개 일간지 관련어와 중앙일보, 조선일보의 관련어를 비교 검토하여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이 드러났다.

- 기부 유의어: 후원
- 기부금 관련어: 기부금, 후원금, 성금, 모금, 정치자금, 학교발전기금, 장학금, 의연금 등
- 기부자 관련어: 학부모회, 노동조합, 이웃, 대기업, 벤처기업, 공무원, 임직원, 독지가, CEO, 연예인, 기업가, 소속사, 공공기관, 보험수익자, Honor society, 사회지도층 등
- 기부수혜자/사회문제: 정당, 사립학교, 대학, 창의인재, 불우이웃, 장애인,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사회복지단체(법인, 시설), 병원, 난치병, 고엽제후유증, 국제구호단체, 도서관, 선수단,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 어린이날, 청소년들, 아동, 북한어린이, 여성가장, 농어촌 등
- 기부관련기관: 시민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푸르메재단, 국제구호단체, 헌법재판소, 법원, 행정자치부,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 기부실명어: 행복추구, 마음 씀씀이, 자원봉사, 사회공헌활동, 한번 참여, 모아, 좀더, 개별적, Hot, 선뜻, 다양화, 다각화, 단돈, 일상화, 쾌척, 매달(원씩), 일정금액, 소득공제, 재산, ARS, 벌금, 보험금, 증여세, 출연료, 퇴직금, 월급, 투명성, 사전신고, 활성화, 적극 동참, (반강제적, 관제시대) 등

2. ‘기부’ 유의어 분석

1) 기부와 후원의 추이

앞선 분석에서 기부와 유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후원’이었다. 사전적으로 ‘기부(寄附)’는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을 의미한다. ‘후원(後援)’은 ‘뒤에서 도와줌’(네이버 국어사전, 2016.11.24.)으로 기부보다는 일반적인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기부와 후원, 기부금과 후원금, 기부자와 후원자의 명칭이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부’ 키워드와 유의어인 ‘후원’이 신문자료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림 6] 주요 5개 일간지 사회면에 나타난 기부와 후원 키워드 검색건수 (1998년~2015년)

1998년부터 2015년까지 기부 키워드와 마찬가지로 후원 키워드의 노출 빈도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까지 미세하게 후원 키워드가 기부 보다 많았는데, 2011년 이후에 기부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후원 키워드는 감소를 보였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2011년 후원 검색 건수가 최고 빈도를 보여주었다는 것인데, 이 시기 주요한 신문 기사 내용은 2011년 3월~5월 정치자금법, 소액후원제도가 주요한 문제로 다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부’와 ‘후원’의 변화 추이가 달라지는 현상, 예를 들어 최근 5년내 에 감소하고 기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기부와 후원의 관련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

표는 주요 일간지의 사회면에 나타난 ‘기부’와 ‘후원’ 관련어이다. 토픽랭크 가중치 값이 높을수록 키워드와 가까이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관련어이다.

〈표 2〉 주요 5개 일간지 사회면에 나타난 ‘기부’와 ‘후원’ 키워드 관련어 순위 및 가중치 값 (1998년~2015년)

순위	기부		후원	
	관련어	가중치	관련어	가중치
1	다양화	3.0	대한장애인체육회	4.19
2	양현석 대표	2.61	강정마을회	4.14
3	ARS	2.57	개인 명의	4.0
4	Hot	2.4	국회의원	4.0
5	마음 씬씀이	2.4	진보정당	3.08
6	이타적 활동 적극적	2.4	교육청	2.64
7	송승헌	2.31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2.57
8	우리나라	2.31	대한 계좌추적 수사	2.4
9	세월호	2.18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	2.4
10	양현석 5억	2.18	제주지방경찰청	2.4

분석결과, ‘기부’와 ‘후원’의 관련어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부는 마음 씬씀이, 이타적 활동, 적극적, 다양화, ARS, hot과 같은 기부행동을 설명하는 언어들에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유의미한 사건에 대해서도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무엇보다 최근에 연예인들 개인의 기부활동이 증가하면서 기부 관련어로 급증하고 있다는 현상이 드러났으며, 이것이 전체적으로 기부에 대한 기사 노출 빈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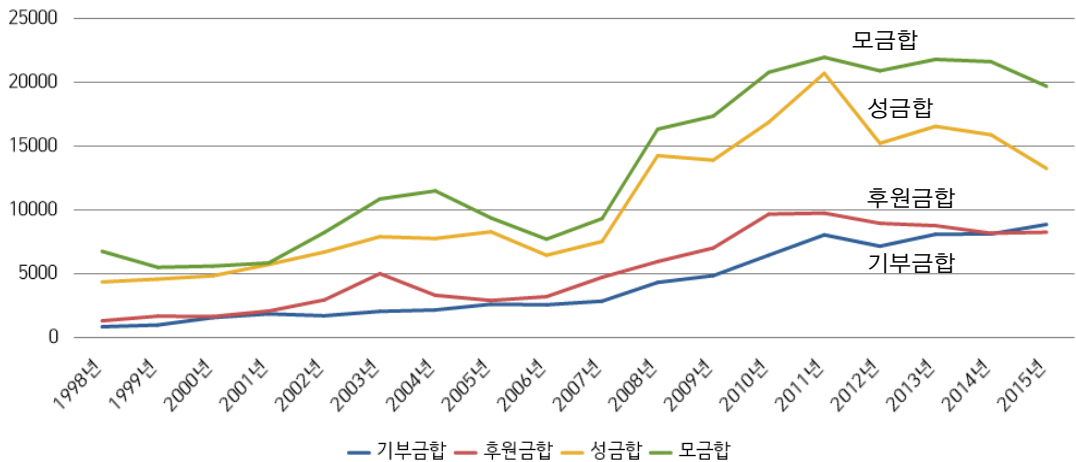
반면에 ‘후원’의 경우는 국회의원, 정당, 교육청, 정치자금법 과 같은 관련어들의 빈도가 높아서, 후원의 개념이 정치후원의 개념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원’ 키워드의 관련어에 높은 순위를 나타낸 특징적인 사건으로 2012년 7월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과 관련하여 강정마을 후원계좌의 등록 거부 등에 관한 신문 보도 빈도가 높았다.

2) 기부금, 후원금, 성금 그리고 모금의 추이

기부 키워드 관련어 중에서 기부금, 후원금, 성금 그리고 모금에 대한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¹⁰⁾.

10) 그 밖에도 기부 키워드와 관련어로 의연금, 지원금, 장학금 등이 추가로 추출되었으나 신문자료내 검색 비율이 너무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기부금, 후원금, 성금, 모금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전적으로 ‘기부금(寄附金)’은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대가 없이 내놓은 돈이며, ‘후원금(後援金)’은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 사업 따위를 돕기 위한 기부금이다. ‘성금(誠金)’은 정성으로 내는 돈으로써 (국가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내는 돈을 말한다. 이들에 비해 ‘모금(募金)’은 기부금이나 성금 따위를 모으는 것을 의미한다(네이버 국어사전, 2016.11.24.).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원이 기부의 개념보다 넓고 일반적임에 비해서, 기부금과 후원금의 개념은 유사하게 호환되는 개념이라 하겠다. 이들에 비해 성금은 국민의 활동으로 제한점을 보인다. 모금은 기부금, 후원금, 성금을 모으는 활동의 의미가 크다. 이러한 개념들이 신문자료에서 어떻게 노출되고 있었는지 살펴보면 다음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신문자료에 나타난 기부금 관련어의 변화 추이 (1998년~2015년)¹¹⁾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기부금, 후원금, 성금을 모으는 활동인 ‘모금’의 검색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금’이 많은 빈도를 보여주었다. 상대적으로 ‘후원금’의 빈도가 ‘기부금’의 빈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2008년에 성금과 모금이 가장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1년 성금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보도기사를 세부적으로 검색해보니, 2002년과 2003년에 태풍 루사와 매미, 2007년 12월 태안 기름유출사건, 200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관련 기사, 2010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 관련 기사, 2010년 천안함 침몰로 인한 유가족 지원, 2010년 아이티 지진피해 성금 모금 등의 영향으로 성금과 모금에서 검색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다. 2011년에 가장 높은

11) 이 그림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DB에서 추출한 결과로써,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를 포함한 빅인즈프로 DB에서 추출한 결과가 변화추이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빈도를 보였던 성금은 두 가지 큰 사건이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2011년 3월에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 쓰나미 재해에 대한 성금 모금이며, 다른 하나는 2011년 10월 즈음 실시된 정부주도 국군장병 격려성금 모금에 대한 기사들이 많았다. 이에 비해 후원금의 비중이 높았던 때는 정치적으로 주요한 사건들과 관련이 높았는데, 특히 2004년, 2008년, 2012년 4월에 있었던 국회의원선거와 관련이 높았다.

다음으로 기부금, 후원금, 성금, 모금 관련어에 관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사전적인 정의로는 유사한 개념들이지만 실제 신문자료의 관련어를 분석해본 결과 개념의 '용법'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다음 <표 3> 참조).

<표 3> 주요 5개 일간지 사회면에 나타난 기부금, 후원금, 성금, 모금 키워드의 관련어 순위 (1998년~2015년)

기부금		후원금		성금		모금	
관련어	가중치	관련어	가중치	관련어	가중치	관련어	가중치
사립대학	7.1	국회의원들	11.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4	교직원들	3.73
연세대	5.1	정치자금법	6.43	불우이웃	4.62	국세청	3.43
국세청	2.64	원씨	5.42	유족들	3.53	수재의연금	2.47
교육부	2.4	김씨	3.2	삼성	3.2	세풍	2.4
국내 10대 그룹	2.4	청목회	3.11	교육청	3.0	한나라당 총재	2.4
학부모	2.18	민주노동당	3.08	어린이날	2.86	보건복지부	2.4
종교단체	1.85	한나라당	3.0	피해자	2.67	공무원 사회	2.4
영업이익	1.75	청원경찰친목협의회	2.67	에스케이	2.31	반강제적	2.4
대한적십자사	1.75	입법 로비	2.4	천안	2.31	이석희	2.31
상장사	1.71	대원고속	2.4	유가족/직원들	2.0	노조 간부들	2.22
경북	1.71	부장검사	2.31	기업들	1.71	검찰 관계자	2.18
매출액	1.67	노조원 명의	2.18	엘지	1.6	대선자금	2.0
영수증	1.6	징계위원회	2.18	두산	1.6	현대차	2.0
지인들	1.6	후원회	2.18	포스코	1.6	특히 정부	1.78
대학들	1.6	선관위	2.0	성북구	1.6	박영관	1.71
재단적립금	1.6	압수수색	2.0	이웃들	1.6	대검 중수부	1.67
그동안	1.6	중징계	1.82	5개월 동안 1300만	1.5	조합비	1.6
기부자	1.6	영수증 처리	1.71	대한적십자사	1.33	관제시대	1.6
대기업	1.6	교사 4명	1.71	세월호 사고	1.33	검사장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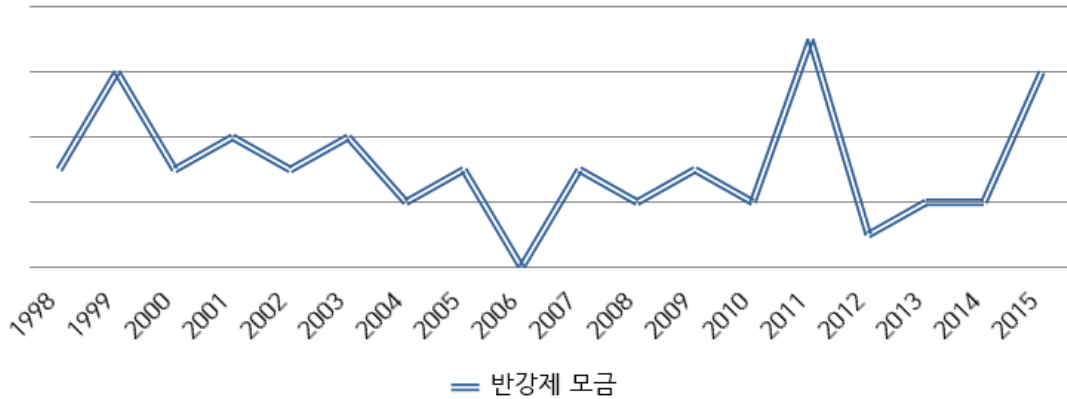
분석결과, 기부금과 연관이 높은 관련어들은 대학, 교육부, 종교단체, 대기업 등이었는데, 2000년대 초반 사립대학의 기부금관련 기사, 종교단체 기부에 대한 기사들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 후원금의 경우, 국회, 정치자금, 정당, 후원회, 선관위 등이었으며, 청목회 사건, 노동조합의 정치후원에 관한 기사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금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불우이웃, 유가족, 피해자 등이었다. 매년 12월~1월 실시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캠페인 기사들과 세월호 사고를 비롯한 재난재해관련 기사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모금의 경우, 수재의연금, 대선자금, 정부, 반강제적, 관제시대 등이었으며, 1998년~1999년에 있었던 세풍사건과 관련한 기사, 2004년과 2008년의 미국 대선 관련 기사에도 모금에 대한 언급이 높게 나타났다. 이 분석자료는 일간지 사회면에 나타난 기사를 토대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대기업이 관련어로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모금’ 관련어로 ‘현대차’가 높은 가중치를 보였는데,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현대차 노동조합원(노사)의 결식아동지원, 아이티지진피해돕기, 교육기부 등 모금활동, 기업의 불우이웃돕기성금 기탁(사회공헌), 불법정치자금 모금에 동원 등이 주를 이루었다. ‘기부’와 ‘기업’은 임직원 모금, 성금 기탁, 정치자금 동원 등 다층적으로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기부’ 설명어 분석

앞서 제시한 <표1>에 의하면 ‘기부’ 키워드의 관련어로 다양한 설명어가 추출되었다. 예를 들어 행복추구, 마음 씀씀이, 참여, 모아, Hot, 선뜻, 단돈, 일상화, 쾌적, 매달(원씩), 적극동참 등 긍정적인 설명어들이 많았으며, 소득공제, ARS, 벌금, 보험금, 출연료, 퇴직금, 월급, 등 한국 사회의 기부를 설명하는 표현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이 때 ‘기부’ 관련어로는 부정적 설명어는 추출되지 않았는데, <표3>에서 보면 ‘모금’의 관련어로 ‘반강제적’, ‘관제시대’ 등이 높은 순위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기부’ 현상인 ‘반강제적 모금’이 어떠한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탐색해 보았다.

1) 반강제 모금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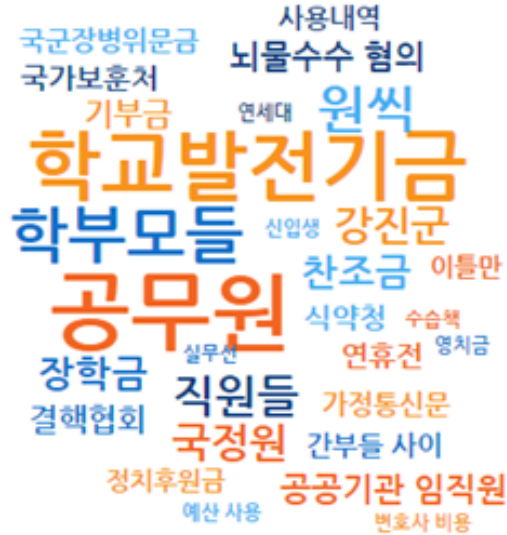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주요 5개 일간지 사회면에서 모금에 관한 검색건수는 총 8,217건이었으며, 그 중 관련어‘반강제적’의 검색건수는 56건이었다. 전체적으로 2011년 7건으로 가장 많았고 1999년과 2015년이 6건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림8 참고)



[그림 8] 주요 5개 일간지 사회면에 나타난 ‘반강제 모금’ 검색건수 변화 추이 (1998년~2015년)

년도별로 분석해보면, 1998년에는 한나라당 대전자금 불법모금 사건, 학교발전기금(1998년 9월 15일부터 허용) 반강제적 모금이 주요 내용이였다. 1999년에는 기관장의 영치금을 위한 반강제 모금 활동, 학교발전기금을 위한 반강제 모금, 기업조합원들 대상 반강제적 모금활동이 문제가 되었다. 2000년에는 학교발전기금의 강제모금으로 인한 문제와 폐지요구, 2001년 학교발전기금, 찬조금 문제, 기부금품 신고제의 허점: 권유와 청탁 문제, 2002년에는 크리스마스실 학교별 할당, 학교내 자율 학습감독비 요구, 학교의 불법찬조금 문제, 2003년에는 연세대학교 반강제 기부금 모집, 불법정치자금과 단절 선언, 눈가림식 손지금지령 등이 기사화 되었다. 2004년 학교발전기금 폐지(2005년1학기 부터) 기사, 2005년 여전한 학교불법찬조금 문제, 학부모들의 불이익 우려한 반강제 참여, 2007년 대학의 발전기금 걷기 문제, 부모 찬조금 요구 여전, 2008년 학교기금에 이름적어 강제모금, 2009년 정부의 반강제 모금:모든 공직자 후원금내라, 크리스마스실 판매액 유용 문제, 2010년 학교내 천안함 유족돕기 모금함 반강제 설치, 2011년 지자체 단체장 장학재단을 위해 지방기업들에게 반강제적으로 모금을 한 사건, 2012년 지사의 반강제 공무원동원 투표 및 모금, 2013년 국정원댓글사건관련 국정원 반강제 모금활동, 2014년 **시민협회의 공무원동원 모금, 2015년에는 ‘청년펀드’에 기업, 은행들이 반강제로 가입, 공무원들의 정치자금, 군위문금 강제 모금 거부, 보훈처에 투명성요구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토픽랭크 가중치값에 따라 재분석하였다. 가장 강제적 모금에 관련이 높은 언어들은 다음 <그림 9>와 같다. 글씨가 클수록 가중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림 9] 주요 5개 일간지 사회면에 나타난 ‘반강제 모금’ 관련어 특성 (1998년~2015년)

1998년부터 2015년까지 ‘반강제적 모금’에 가장 많이 관련된 것은 ‘학교발전기금’ 이었다. 허용된 1998년부터 2005년 폐지된 이후까지 각급학교의 학부모들의 반강제적 찬조금 동원, 2010년 천안함 유족 돕기 모금함 설치까지 학교내 반강제 모금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되었다. 두 번째로 ‘공무원’이 높은 관련성을 보였는데, 1978년이후 지속된 공무원들의 불이웃돕기성금, 국군장병위문금 모금활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반강제적 모금에 대한 거부, 투명한 집행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공기관 후원금 참여 공문을 내리고, 공무원대상으로 2012년 지자체 정치자금 동원, 2013년 국정원 모금 등은 지속되었다. 세 번째로 불법정치자금과 단절, 협의회, 장학재단, 2015년 청년펀드 관련한 ‘기업’ 대상 반강제/비자발/준조세적 모금 문제가 있었으며, 끝으로 대학의 반강제 기부금 모집, 동문회비 모집, 촌지, 크리스마스 실 구매 할당, 조직내 반강제 직원들 대상 모금 문제 등이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기부’가 어떤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해 왔는지,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맥락과 함께 놓여있는지 등에 대한 기부가 가진 특성과 변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논의의 시작점으로써 기부문화가 급속도로 확대되어 온 최근 20년간 (1998년부터 2015년까지) 기부 및 관련어가 어떻게 등장하고 변화해왔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방법은 단순히 키워드 변화만 보는 문화체학(컬처로믹스)이 가진 우연성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키워드와 문단 내 연관관계를 이루는 관련어’를 함께 분석하는 복잡계적 관점을 취하였다. 이에 상대적으로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분야별 특징적 키워드를 추출 할 수 있는 신문기사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BIGKINDS-pro(빅카인즈프로)’데이터베이스 내 중앙지 (주요 5개 일간지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와 조선 및 중앙일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대용량 신문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최근 20년간 ‘기부’에 관한 신문기사에 노출 빈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기부’에 관한 기사는 200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고, 해마다 12월에 기부관련 기사 노출 빈도가 급증하였다. 특징적으로 1990년대말 정치자금관련 기사가 많았으나 점차 줄어들었으며,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연예인관련 기사가 증가하였다. 가장 기부관련 기사가 높았던 해는 2014년이었으며 ‘세월호 참사 사건’ 관련 내용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기부와 연관성이 높은 사건과 언어들은 최근 2007년 이후 10년간 노출 빈도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둘째, ‘기부’와 ‘후원’의 관련어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기부’는 마음 씀씀이, 이타적 활동, 봉사, 적극적, 다양화, ARS와 같은 기부행동을 설명하는 언어들과 관련성이 높았으나, ‘후원’의 경우는 국회의원, 정당, 교육청, 정치자금법과 같은 관련어들과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면만을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후원’이 ‘기부’보다 기사노출빈도가 더 높았다가 2011년 이후 ‘기부’가 좀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기부금, 후원금, 성금, 모금 관련어에 관한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유사한 개념들이지만 실제 신문자료에서 ‘용법’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금’의 검색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금’이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다. 상대적으로 ‘후원금’의 빈도가 ‘기부금’의 빈도보다 높았다. 성금은 재난재해사건(태풍, 지진, 쓰나미 등)과 연말 불우이웃돕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선냄비 등), 국군장병격려(위문금, 의연금)와 관련이 높았고, 후원금은 정치적인 사건들(대선, 국회의원선거) 등과 관련이 높았다. 기부금은 대학, 교육부, 종교단체, 대기업 등과 관련이 높았다. 모금의 경우, 수재의연금, 대선자금(한국, 미국), 정부, 반강제적, 관제시대 등과 상대적으로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이에 끝으로 ‘모금’과 ‘반강제’의 맥락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 20년간 주요하게 관련이 있었던 것은 학교발전기금, 정치자금, 공무원의 성금모금, 정부주도 모금사업, 기업의 비자발적 동원, 개인들의 학교, 조직에서 강요된 모금활동 등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처음으로 대용량 신문기사자료를 빅데이터로 활용하여 기부에 관한 특성과 변화 추이를 탐색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기부’를 둘러싼 개념과 맥락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변화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최근 20년간 다양한 정치-역사-문화적 사건들과 관련되어 기부가 변화하고 있었다. 기부, 후원, 기부금, 후원금, 성금, 모금 등 다양한 개념들이 유사하지만 다른 맥락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또한 기부에 관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설명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과 맥락에서 나타나는지 설명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프로’ 데이터베이스와 조선 및 중앙일보의 데이터베이스의 기사 검색 환경이 다른 점으로 인해 ‘빅카인즈프로’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다른 자료는 보조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이다. 둘째, 본문에도 밝혔듯이 ‘빅카인즈프로’의 문제의 영향을 받았다. 즉 기자의 아이디어가 다를 경우 같은 기사를 다른 기사건수로 검색하는 문제, 검색환경이 열악한 문제 (예, 형태소로 ‘기부’를 검색하여도 ‘안기부’ 등과 단어가 검색에 포함될 가능성)가 있었다. 셋째, 많은 건수의 검색된 기사내용을 일일이 읽고 분석하지 못해 일부의 내용은 다소 추상적으로 분석(예, 연도별 추이 분석에 있어 연구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시대적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이 이루어졌다. 이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사 건수뿐만 아니라 기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색 키워드만 포함되어 있는 기사를 선택하고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기사 내용에 대한 긍/부정의 이미지 등 다양한 분석을 시도할 것을 제안한다. 이때에 기사 분석 내용을 2-3명의 연구자가 따로 검토하여 내용분석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연도별 다양한 키워드 검색 및 가중치 분석에 있어 정치, 사회, 경제 등 여러 영역에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한다면 보다 풍부한 해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도희. (2015). 검색데이터 분석의 사회과학 연구에의 적용과 시사점: 청년 1 인가구 생활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9(1), 75-94.
- 김미혜 외. (2004). 독립형 인터넷 신문 오마이 뉴스의 장애관련 보도경향에 대한 내용 분석. 이화사회복지연구, 5, 43-78.
- 김수성, 문성훈. (2015).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세제지원 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16(4), 63-93.
- 김혜영, 김흥규, 강범모. (2012). 신문 텍스트로 살펴본 문화 소비 현상의 트렌드. 정보과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응용, 39(3), 244-251.
- 노혜진 외. (2015). 기부 및 사회이휴 트렌드 분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류기형. (1991). 우리나라의 모금활동 실태와 개선방안. 사회복지, (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115호)
- 류기형. (1991). 지역공동모금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에레즈 에이든과 장바티스트 미셸 저, 김재중 역, (2015). 빅데이터 인문학: 진격의 서막, 파주: 사계절.
- LG경제연구원, 미디어다음. (2010). 미디어 소비를 통해 본 한국인의 관심사와 라이프 스타일.
- 이영제, & 강범모. (2012). 정치 관련 신문 언어의 변화 양상-키워드와 명사 관련어를 통해 본 2000~2009 년의 변화 양상. 언어과학, 19(1), 203-234.
- 채 완. (2007). 아파트 이름의 사회적 의미. 사회언어학, 12(1), 231-252.
- 최윤정, & 권상희. (2014). '빅데이터' 관련 신문기사의 의미연결망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31(1), 241-286.
- Brown, P., & Minty, J. (2006). Media coverage & charitable giving after the 2004 tsunami.
- Lobb, A., Mock, N., & Hutchinson, P. L. (2012). Traditional and social media coverage and charitable giving following the 2010 earthquake in Haiti. Prehospital and disaster medicine, 27(04), 319-324.
- Mark Rosenman. (2012.9.4.) Paying taxes and giving to charity aren't the same thing. The Chronicle of Philanthropy.
- Reich, R. (2010). Toward a political theory of philanthropy. Giving well: The ethics of philanthropy, 177-195.
- Wells, R., & Caraher, M. (2014). UK print media coverage of the food bank phenomenon: from food welfare to food charity?. British Food Journal, 116(9), 1426-1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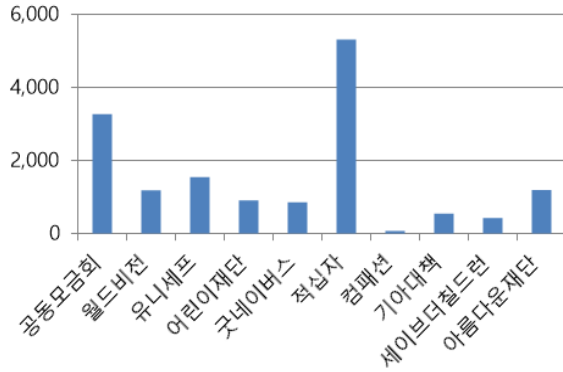
<기사>

- 고대권 (2016.4.22.) 전경련의 정정당당한 모습을 기대한다. www.srwire.co.kr/archives/20956
- 김동호 (2015.10.15.) 빌게이츠 '기부가 양극화 해소 큰 효과' 고액기부 과감한 세제혜택이 세계 흐름. 중앙일보.

- 변홍철 (2011.1.23.) 성금의 정치학 “ KBS 국군장병 격려성금, 정부 북소리에 발맞춘 선동 아닌가”. 평화
뉴스
- 신성현 (2014.12.11.) 우리나라 모금의 시대별 트렌드. www.thefirstmedia.net/ko/?author=9
- 장홍배 (2014.8.27.) ‘아이스 버킷’보다 세금율! : 기부가 세금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 시민정치시평270.
- 정원식 (2011.2.15.) 국민성금 모금 ‘군사정권 풍경’: 정부여당 걸핏하면 제안하고 방송이 앞장 ‘구태의연’.
주간경향 912호.
- hedgehog (2016.4.12.) '적십자회비 안내도 된다' 인식 확산...모금액 감소세.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1/0200000000AKR20160411135000061.HTML>.

부록1: 주요 5개 일간지에 나타난 모금단체의 관련어 특성(1998년~2015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3,269건
- 월드비전 - 1,188건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1,548건
- 어린이재단 - 907건(한국복지재단 검색어 제외)
- 굿네이버스 - 854건
- 적십자 - 5,312건
- 컴패션 - 69건
- 기아대책 - 545건
- 세이브더칠드런 - 429건
- 아름다운재단 - 1,191건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3,269건



10+) 아름다운재단 - 1,191건



2) 월드비전 - 1,188건



3)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1,548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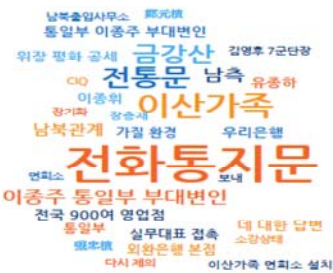
4) 어린이재단 - 907건



5) 굿네이버스 - 85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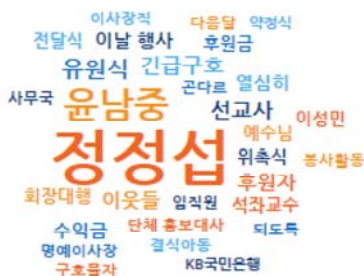
6) 적십자 - 검색건수 5,31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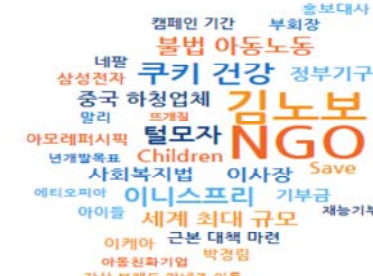
7) 컴패션 - 검색건수 69건



8) 기아대책 - 검색건수 545건



9) 세이브더칠드런 - 검색건수 429건



부록2: 주요 5개 일간지에 나타난 정부별 기부와 후원 관련어 특성(1998년~)



김대중정부
기부 - 검색건수 1,671건

행정자치부 후보자
출리아니 재판장 특정 다수
선거자금 사람들 생활화
장애인 사회단체 공무원
한나라당
자민련 불우이웃 민주당
소득공제 위원장
재판부 선거법 불허처분
공명선거 원이하
의약품지원본부 공인회계사

노무현정부
기부 - 검색건수 4,035건

복지시설 속속 사은품
공익법인 구매금액 국회의원 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beautifulinsu.org
불우이웃 정치자금
가업자 에프엔 보험금 유형
어린 정치권 보험금 수익자
신한카드 사회단체 카드사
보험료 교보생명 활성화
카드 포인트 중앙선관위
부동산 롯데백화점 종교단체
보험 대리점 비씨카드 난치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명박정부
기부 - 검색건수 10,261건

회원들 웰로 직원할인카드
KB카드 포인트
카드사들 선관위
재단 운영 기업들
미앤이클라우드 회사주
공직선거법
이명박 대통령
선관위 안철수재단 김능환
판매수익금 수익자
무조건 사회단체 팔고

박근혜정부(~2015.12.31)
기부 - 검색건수 7,732건

엔젤 데이 워커힐연세경
부사장 삼성 사장단
마음 썸썸이 희생자들
운영진 양현석 대표
1,000만 Hot NGO
ARS 다양화
농지법 임직원 송승헌
청년희망펀드
롯데카드 중고물품

2016.1.1~10.31까지 1,522건

김대중정부
 후원 - 검색건수 2,576건

결과 불우어웃
 어린이용 겨울옷 원씩
 현대자동차 사람들
 백혈병 **대한축구협회**
 회장님 **주택은행**
 겨울옷 후지필름
 아디다스 **노숙자** 요청서
 질레트
 베트남 **북한측** 맥도날드
 물품인수약속서류
 만나 밑가루

노무현정부
 후원 - 검색건수 4,557건

다단계 판매업체 35곳
 원씩 민주당
스포츠토토
 다단계 **기업들 협약식** 정무위
 인천 인적 사항 **국회의원**
 한해 2억 장애인 대학 신입생
외환은행 노조 승파구 방어론
 푸마 선관위 www.sportstoto.co.kr
 르노삼성자동차 국회의원 브로필
 문제제기 노조원들
 홍명보장학재단 매출액
 국회 보건복지위원들

이명박정부
 후원 - 검색건수 8,744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유관기관
 관영력
 입법활동 **청목회** 정치자금 고발 사건
 진보정당 **국회의원**
 연관성 구정장
원씩 선관위
 동출 의원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조합 민주당 위원장 장애인 아동들
 동료 의원 **노조원** 여의도 현대산업개발
 전국청원경찰친목회의

박근혜정부(~2015.12.31)
 후원 - 검색건수 5,539건

안지도 롯데일성음료
현금 800억 정치자금
 삼성그룹 1,000억 지역기반
평창조직위
 보좌관 대선
삼성 국회의원
 언어교육 케이디 평창 대한걸일경기연맹
지방의원 8,860만
다른 의원들 현물 200억
 원차만별 파고다어학원

2016.1.1~10.31까지 1,197건

2016년 기획연구 보고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획연구 시리즈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는 2009년부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획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 기획연구1]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 연구

연구자

이상신(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박훈(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첫 번째 기획연구로서, 건강한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세법제도 확립과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개선 연구’를 통하여 기부관련 세법제도개정안(이월공제기간5년으로 연장_소득세법 제34조 제3항)이 통과되는 첫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2009 기획연구2] 부유층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연구

연구자

강철희(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이민영(한국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부문화의 성장과 함께 고액기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액기부에 대한 연구와 정보에 대한 요청이 높아졌습니다. 부유층의 고액기부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인식을 기부선진국의 수준으로 성장시키려는 목적으로 두 번째 기획연구가 기획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고액 자산가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기부에 대한 인식과 기부형태를 분석하여 향후 건강한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건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2010 기획연구3] 계획기부 도입을 위한 연구

연구자

강철희(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오준석(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상신(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박훈(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2009 기획연구2를 통해 확인된 부유층 기부활성화가 실현되기 위해 계획기부(planned Giving)의 개념과 실행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를 기획하였습니다. 전 생애의 라이프사이클과 자산운용, 유산상속을 함께 고려하며 계획적으로 기부를 실행하는 계획기부는 유산기부와 고액자산기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매우 다양한 전략과 방법들이 포함되는 계획기부를 개념, 법률, 금융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추후 한국사회에 다양한 기부상품과 제도적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기분을 제시하였습니다.

[2011 기획연구4]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계획기부 연구

연구자

오준석(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상신(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2010 기획연구3에 이은 후속연구로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맥락에서 계획기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계획기부의 방식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미국의 실제 계획기부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의 법적 환경에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여 향후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환경과 인프라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2012 기획연구5] 국내 민간 공익재단 기초연구

연구자

이상민(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상신(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국내 최초로 민간공익재단의 현황과 역할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재단 정보를 취합하여 통계적 자료 분석을 통해 공익재단의 사업분야, 설립주체, 설립연도, 등록부서, 자산의 규모 등을 분석하고, 민간공익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 이들 법과 제도가 지난 40여년의 기간 동안 어떤 배경하에서 어떤 변화과정을 거쳐왔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향후 한국의 민간 공익재단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진행된 연구입니다.

[2013 기획연구6]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획연구

연구자

박훈(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신(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송헌재(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노연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실공익법인 지정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 연구’, ‘국내 민간공익재단에 대한 세법적 규제의 변화 및 기본방향’, ‘기존 나눔통계를 활용한 국내 나눔총량 추계’, ‘국내기부, 자원봉사 관련 조사연구 동향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 기부문화 현황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도입 방안 등을 분석하고자 진행된 연구입니다.

[2014 기획연구7]

연구자

이형진(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한동우(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철희(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노연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민영(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민화(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BK21+연구원),
이상신(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재학원 교수), 송헌재(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필란트로피(Philanthropy)란 무엇인가?’ ‘한국인의 상호부조 행동분석’, ‘비영리조직의 모금활동의 성공과 실패요인 분석’, ‘모금 실무자의 윤리적 딜레마’, ‘고액기부자들의 기부선택을 위한 3가지 제도:법인과 신탁, 그리고 기부자조언기금 비교연구’, ‘가구 유형별 기부행태 및 가구 내 기부결정에 대한 미시적 분석’ 등을 통해 한국적 맥락에서 나눔문화와 모금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실무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진행된 연구입니다.

[2015 기획연구8]

연구자

조상미(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형진(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이민영(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민화(대구대학교 산업복지학과 교수), 박훈(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국내 다국적기업의 사회공헌 실태조사’, ‘시민됨과 기부’, ‘재단과 책무성’, ‘비영리조직 모금활동의 윤리적 풍토와 대처에 관한 연구’, ‘공익연계마케팅(CRM)관련 과세제도 연구’등을 통해 국내 기부문화에 관해 모금현장과 기부자, 사회전반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기획연구 자료는 기부문화연구소 블로그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research.beautifulfund.org) 블로그에서는 기부문화연구소의 기획연구와 그 외 다양한 기부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획연구 보고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한국 최초의 유일한 기부문화전문연구소로서 한국사회에 기부문화가 단단히 뿌리내리도록 기부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정확한 통계자료, 기부 선진국의 풍부한 사례들을 제공하는 나눔의 지식창고입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연구 및 조사, 교육, 출판, 정보 교류를 통하여 기부문화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비영리단체 실무자들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 기부문화조사 및 심포지엄

격년으로 개인/기업의 기부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기부관련 심층 주제에 대해 국내외 최신기부동향 및 심층분석 내용을 토론하는 기부문화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 **한국인의 기부지수조사** : 2016년도 새롭게 개편된 연구조사방법을 통해 민간나눔자료로서 국내 기부에 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올바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활동과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된 정책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짝수년도 격년진행)
- **비영리기관 현황 및 실태조사** : 국내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공시자료를 통한 기본정보 수집과 다양한 주제를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한국비영리기관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홀수년도 격년진행)
- **기부문화심포지엄** : 국내외 최신 트렌드 및 한국 기부문화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개념과 주제를 소개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 기획연구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부유층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연구 등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기부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기획연구하여 올바른 정책생산의 방향제시 및 각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